

韓語心理描述用言用法探討

楊人從*

目 次

- 一、前言
- 二、韓語心理形容詞的使用例分析
- 三、韓語心理動詞的使用例分析
- 四、心理情緒表達上的限制
- 五、結論

一、前言

有關描述心理狀態的形容詞和動詞，在漢語裡沒有明顯的界定和區分，我們經常聽到甚或自己也常常說：「我高興、你高興、他高興、大家都很高興」、「他很傷心」、「他沒興趣」等等，本來高興、傷心、有無興趣都是一個人的心理狀態，嚴格說起來之所以會有這些感受，都是一個人的經驗，來自自己內心以及對外部來的事物的感受。

心理情緒的喜怒哀樂憂憤悲慚悔累驚羞痛等狀態都是主觀

* 中國文化大學韓國語文學系副教授

的心理情緒感受，應該都是第一人稱才能描述的，身為局外人對第二、三人稱的這些心理情緒狀態的敘述是不合理的，對於這些情緒的敘述，韓語裡有特殊的方法來表達，也就是韓語裡的心理描述在人稱上有所限制。

相較之下，漢語一廂情願的成分居多，或許兩種語言的差異關係，漢語裡沒有凸顯心理狀態的機制，當然漢語裡的這些心理狀態的描述，或許可以是看穿一個人心情的「我知道你很高興，我知道你很傷心、我知道你沒興趣」、或是「他看起來很高興、傷心、沒興趣」等等的推測或省略，如果這樣的話，漢語的說法似乎合理的。

筆者為此特別留意韓國人的談話，發覺韓國人日常談話中就能自然區分心理形容詞與心理動詞，今試從小說、書信等各種語料，來整理其規律。

本文所引例句大部分出自李允成的小說《東醫寶鑑》和李聖鍾的《黎明의 눈동자》以及若干散文集。

二、韓語心理形容詞的使用例分析

為瞭解心理形容詞在韓語裡的實際應用情形，茲由日常注意韓語操使者的談話或書信及小說、散文等蒐羅實際使用例，加以比較分析。

韓語的心理形容詞可分為主觀的和客觀的心理描述形容

韓語心理描述用言用法探討

詞，前者指喜怒哀樂等只有當事者可以知道的感情，如：

主觀的心理形容詞

喜：기쁘다, 반갑다, 즐겁다	羨：부럽다
怒：분하다	驚：의아하다
哀：슬프다, 서럽다	痛：아프다, 가렵다
樂：즐겁다	慚：부끄럽다, 미안하다
憂：외롭다, 쓸쓸하다, 그립다, 답답하다, 궁금하다	懼：두렵다, 무섭다
煩：섬섬하다, 싫다, 괴롭다, 안타깝다	惜：아깝다
	飢：고프다

這類心理狀態可以顯現在外，也可以以不相干的表情顯示，外人無法猜測真正狀態的。至於後者指有一般屬性的，譬如某種食物給人的味覺是辣的，而感覺辣的味覺隨人不同，因人而異的味覺則屬於主觀的性質，所以這類心理形容詞歸屬於主客觀的心理形容詞。如：

主客觀心理形容詞

味覺：달다, 쓰다, 땀다, 시다, 맵다, 짜다, 싱겁다, 짭잘하다,	嗅覺：고소하다, 觸覺：촉다, 시원하다, 덥다, 뜨겁다,
---	--------------------------------------

視覺：예쁘다, 귀엽다, 밍다, 困擾：어지럽다, 걱정스럽다

良麻：좋다, 나쁘다

難易：어렵다, 힘들다,

불편하다

2.1. 主觀心理的描述實例

爲探究心理形容詞使用情況，首由主觀心理形容詞舉例觀察。

2.1.1. 고맙다

(1)

a. 생각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전 여기가 좋습니다.

《여명의 눈동자》 4-308

b. ..소인은 그것으로 고마워하옵고 분외의 사례일랑은

퇴해주소서 《동의보감》 상 301

由文脈看a.b.兩句都是談話者對第一人稱的感激心理的描述，但是兩句用法不一a.是自己心理狀態的敘述，b.是許浚對病人家屬給自己的厚禮回報表示感謝並予推辭的內容，以轉化爲動詞的型態表達。a.可以是一般的、消極的心理狀態，b. 可以是積極的、事務性的心理態度。

c. 고마워할 것 없네. 《동의보감》 중 119

d. 그럼에도 유의태에 대해 고마워하는 말은커녕 저 혼자

팔자 고칠 궁리 에 바빴으니 그건 도둑이 아니고 무엇이나
《동의보감》 상 356

c.d.是談話者對談話對象直接講話的內容，c.「你毋庸感謝」、d.「你不但對柳義泰沒有感激尙且…」，對第二人稱的聽者的行爲表現做自己的評斷，此時不用主觀心理形容詞的原型而轉化成動詞，這是對第二人稱使用心理形容詞的限制，因為談話者是處於臆測的立場。

e. 하림은 언제나 요구를 선선히 받아 주는 황성철이 고마왔다.
《여명의 눈동자》 4-153

e.句敘述的是作品中人物的心理狀態，看來是作者對作品人物的描述，這是屬於例外的用法。

2.1.2. 기쁘다

(2)

a. 어머님보다 기뻐했던 건 저울시다. 《동의보감》 상 213

b. 고생만 해온 어머니와 아내의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동의보감》 상 314

a.從文脈看這是「我」在說話，「比母親更高興的是我」，此句的心理狀態以轉化動詞表現，屬積極的心理態度。b.「妻子和母親

의喜悅之情流露在外，至今仍浮現在眼前」，喜悅之情是可見的，是積極表露的。

c. 의원의 기쁨이란 이런 것이리라. 아팠던 사람이 나아가서 돌아가는 모습, ...가족들의 그 기뻐하는 얼굴들을 바라보고 기쁨은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뿌듯한 보람이었다. 《동의보감》 중 107

d. 허준을 둘러싸고 어어미와 아내가 유의태의 부름을 받은 사실을 기뻐하면서도 풀어지지 않는 두 사람의 응어리만은 아쉬운 얼굴이었다. 《동의보감》 중 181

c.d.兩句中的喜悅也是顯而可見，但其中的아프다和아쉽다兩主觀心理形容詞因是敘述一般屬性，一般所見的「病人」和「惋惜的表情」，所以還是用原來的型態。

e. 의원 생활을 계속하겠다면 아내도 어머니도 기뻐는 할 것이로되 ...《동의보감》 상 335

f. 대치씨를 찾아 이 아기를 안겨 주면 그분은 얼마나 기뻐할까. 《여명의 눈동자》 4-297

e.f.是針對未來的事敘述我對他人感受的推測，所以 - 어하다有「好像」的意思

- g. 망원경으로 마적들을 보고 난 무정은 무릎을 치면서 기뻐했다.
《여명의 눈동자》 4-264
- h. 여목은 시바다 같은 군의관을 만나게 된 것을 내심 기뻐했다.
《여명의 눈동자》 4-132

g.h. 是作者代替作品中人物敘述心理狀態。

2.1.3. 그림다

(3)

- a. 예순도 못 살고 가신 어머니가 못내 가없고 그림다.
정만영, 미꾸라지, 현수 70
- b. 나는 2차세계대전 후 자유가 그리워 질식할 것 같은
북한에서 탈출하여 ... 《사이공 억류기》 80
- c. 아, 그다지도 그리워하던 하늘과 태양,... 《사이공 억류기》
97
- d. 어릴 때 마음 속에 두고 그리워하던 곳이라 그런지,
고봉진, <향수 여행 >, 현수 118

這幾句都是第一人稱的敘述，但是有著不同的用法，a.b.是內心的觀感，都是나는 -가 그림다 的句法。c.d. 是積極的動作。

2.1.4. 반갑다

(4)

- a. 편지나마 온 것은 반가웠으나, 사연인즉슨 지극히 간단하고 또한 별다른 것도 없었다. 채만식, <소년은 자란다>
- b. 쌀분이는 남편을 만나 반가우면서도 갈땀잎처럼 바짝 여윈 얼굴을 보자 마음이 아파 자꾸만 훌쩍거렸다. 문순태, <타오르는 강>

a. 「接到信是很高興，可是信的內容極為簡單沒什麼特別的」，這句的主體看起來可以是第一人稱，也可以是作者代替作品人物發言， b.句則完全是作者代替發言的。

- c.. 어떻게 반가워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 딱하도록 어색하게 굴었다. 박완서, <오만과 몽상>
- d. 이방을 따라 나타난 험상궂은 사내는 인상과는 달리 허준에게는 뜻밖 에도 반가워해야 할 사람이었다. 《동의보감》 상 94

c.d.

兩句都表示「必須表現歡迎感激」的場面，以動詞化的型態描述心理狀態。

- e. 마을 사람들이 찾아온 아들과 딸을 자기 자식을 끌어안듯 하고 반가워 하며 동동거렸다. 《동의보감》 중 222
 - f. 그가 이름을 대자 그들은 이미 익히 명성을 듣고 있었다고 하면서 몹시 반가와 했다. 《여명의 눈동자》 4-260
- e. f. 也是表示第三人稱表現在外的心理狀態的句子。

2.1.5. 부끄럽다

(5)

- a. 부인들이 병이 있어도 남의에게 진찰받기를 부끄러워하여 그 병을보이기를 싫어하고 더러는 죽기도 하는 사례가 있다. 《동의 보감》 중 288
- b. 올 가을 성례를 치르기로 작정이 되어 딸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역연 했다. 《동의보감》 상 204

a 「婦女之中有羞於給男醫師看病而致死的」，부끄러워하다和싫어하다表示羞與不願的心理狀態積極表露在外，b.表示醜態態度明顯，也是積極的內心態度的表示。

2.1.6. 마렵다

(6)

- a. 창식이가 부시시 일어나더니 킁킁대면서 사방을 더듬었다.
“엄마, 오줌 마려.” 《황석영, 영등포 타령》
- b. 아기가 오줌 마려워해요.

마렵다表示有排泄衝動，使用於 a.句時是有衝動當事者的表白，b.則是談話者以其經驗觀察得知第三人稱，譬如嬰兒的哭鬧意圖。

2.1.7. 싫다

(7)

- a. 나는 그와 충돌하기가 싫어서 잠자코 있었다.
- b. 누구나 정신대에 끌려 가는 것을 싫어했었다. 《여명의 눈동자》 1-14
- c. 워낙 저 애가 남의 신세 지는 걸 싫어 하기 때문에…
《여명의 눈동자》 3-351
- d. 그 자신조차 그것을 보기를 싫어했다. 《여명의 눈동자》 5-53

a. 表示自己內心不願意做某事時，b.c.d.皆是述說他人的心理「好像」不願意那麼做。

2.1.8. 싶다

(8)

- a. 나는 앞으로 어의가 되고 싶다.
- b. 하림은 편지와 문서 내용을 세밀히 검토해 보곤 했지만 아직 그가 알고 싶어하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여명의 눈동자》 3-354
- c.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그를 보고 싶어 했는가.

《여명의 눈동자》4-3 11

- d. 그렇게 돌아오고 싶어하던 고향이었다 《여명의
눈동자》 4-299

以-고싶다型態出現的補助形容詞表示第一人稱的心理意願或希望，b.c.d.各句皆是描述第三人稱的內心願望的。

2.1.9. 小結

以上的主觀心理描述實例顯示，一、表示第一人稱心理狀態或經驗時用心理形容詞原型，表示第一人稱的積極心理態度時用動詞化的型態；二、表示第二第三人稱的心理態度時也用動詞化的型態；三、作品中人物的心理狀態或態度由作家代言，可用心理形容詞原型。

2.2. 主客觀心理的描述實例

對外界的事物的心理感受可以是客觀的一般屬性，也可以是主觀的，諸如嗅覺、味覺、觸覺、好惡等的感覺。

2.2.1. 고소하다

(9)

- a. 어디서 깨를 볶는지 고소한 냄새가 풍겨 온다.
b. 미운털이 콧 박혀 버린 종술이를 두고서 마을 사람들은
소재지 작부의 건으로 자기네가 시방 얼마나 고소해하고

있는지를 어떤 형태로든 나타내야만 직성이 풀렸다. 《운
홍길, 완장》

고소하다 a.是嗅覺感覺到香噴噴的氣味，而 b.則是它的另一意
義，對壞人業報感到快慰，但此處用在第三人稱表露在外的狀
態描述。

2.2.2. 무섭다

(10)

a. 나는 낯선 집에 혼자 남아 있기가 무서웠다.

《연세한국어사전》

b. 제자들이 혹은 무서워하고 혹은 정나미 떨어져 하는 그
냉엄한 눈이었다. 《동의보감》 상 215

對外界環境人物的感覺，a. 句顯示的是自己的內心感受，b. 句
是對他人顯現在外的畏懼表象的描述。

2.2.3. 어렵다

(11)

a.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진학하지 못하고 교과 과정을
독습할 수밖에 없었다.

b. 문을 열어준 노파는 몹시 어려워하며 《여명의 눈동자》
3-108

c. 사장을 별로 어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다른 한 녀석이

슬슬 재담으로 나왔다. 윤흥길, <완장>

- a. 表示家庭環境困難而無法上學，是對外在因素的敘述，屬於一般客觀情況，b. 表示的是一個人面有難色的情況，是內心心情的表露，c.表示下屬對上司毫無分際的態度。

2.2.4. 귀엽다

(12)

- a. 집 안에 아주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를 방에서 기를 때였다. 연세 한국어사전
- b. 이 아기도 귀여워해 주시겠지 《여명의 눈동자》
4-299

- a.可愛的小狗，可以是客觀的也可以是主觀的評斷，b.指呵護、愛護的動作。

2.2.5. 좋다

(13)

- a. 그이가 나는 좋아.
- b. 조카들이 올 때마다 모아 둔 우표와 성냥갑을 약간씩 선물하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 박연구, <외가 만들기>, 현수 140

- a. 表示我對他的心裡觀感，我認為他是好的，就是我喜歡他的

意思，b.是臆測侄兒們會喜歡。

2.2.6. 小結

主客觀心理形容詞可以是對一般外在事物的屬性，也可以是第一人稱的心理經驗感受，而對第二人稱也以詢問爲宜，對第三人稱顯現在外的狀態則必須以어하다動詞化型態描述，表示「猜測、臆測」。

三、韓語心理動詞的使用例分析

韓語的心理動詞指顯示內心知覺的動詞，如知道、不知道、小心、瞭解、思考、覺悟等。

서정수(1996:621)提到的心理動詞有以下數種，但筆者由語料中發現除此之外的動詞也有類似心理形容詞以어하다方式表達的用法，似乎也可將之納入心理動詞分類之內。

알다, 모르다, 이해하다, 오해하다

기억하다, 잊다

느끼다, 놀라다, 깨닫다,

믿다, 생각하다, 사랑하다

(서정수 1996:622)

3.1. 心理動詞的心理描述實例

以下僅舉語料中既是動詞又加上-어하다的例子。

3.1.1. 견디다

(14)

- a. 그건 필시 육체적 고통에 못 견뎌 허위 진술한 것일 것이다. 《연세 한국어사전》
- b. 지난 밤 사이 독은 풀어진 듯하나 대신 눈 썸 자위에 좁쌀 같은 것이 돌아나고 눈물이 쉴새없이 흐르고 눈동자가 아파 못 견뎌하와... 《동의보감》 중 198

a.b.兩句同樣是「忍受」的意思，但卻有不同的用法，兩句都有猜測的意思，因此견뎌하다應也是「好像」的意思。

3.1.2. 모르다

(15)

- a.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멍청히 서 있었다.
- b. 감사와 은혜란 얘기를 거듭하여 오히려 허준이 몸둘 바를 몰라했다. 《동의보감》 상 306
- c. 두 손을 앞에 잡고 선 로인은 몸처신할 바를 몰라하였다.
《선대》

a.句是第一人稱自述，b.c.是作家的代言，但表示疑惑的外在態度，或是「好像是」之意。

3.1.3. 조심하다

(16)

- a. 조심을 했지만 나는 두 번이나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다.
연세 한국어사전
- c. 사내는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해 하며 층계를 올라갔다. 《여명의 눈동자》 1-74

a.句的조심하다小心動作是主觀的行爲，b.句的조심해是修飾하다的動作，對第三者的積極態度的描述。

3.1.4. 잇다

(17)

- a. 어머니의 제자들은 그 외롭고 아팠던 시절의 은사님이셨던 어머니를 못 잊어하며 ,..." 문혜영, <어린 날의 초상>, 현수 148

-어하다以「好像」解釋似乎較爲合理，媽媽以前的學生「大概」沒忘記媽媽。

3.1.5. 당황하다

(18)

- a. 그러나 직원은 불에 덴 듯 당황해 하고 있었다.
《여명의 눈동자》 3-121
- b. 대치는 당황해하면서 다시 고기를 입으로 가져갔다.
《여명의 눈동자》 1-349

a.b.是同一作家的小說內容，兩句的斷字法不同，前者是당황해修飾하다，是消極的表現，後者是積極顯現在外的態度。

3.1.6. 小結

心理動詞為對事物的知覺認知，大部分可以三種人稱通用，其對第三人稱的內心世界感情流露在外的態度描述，用-어하다表示時表示「好像是如何」的意思。

四、心理情緒表達上的限制

由以上各種有關心理描述的實例觀察，得知操使韓語者對心理狀態的描述有幾種模式，以下以話中提及的人稱為主要觀點，對主觀及客觀的心理用言、補助形容詞的用法做歸納。

4.1. 主觀的心理形容詞

主觀的心理形容詞是談話者對自己內心世界或心情經歷的描述用詞，是只有談話者，也就是第一人稱自己才能知道的，這種情況的描述不必做任何的語形變化，可是當表達的是積極的願望則使用動詞化的心理用言。

對於第二人稱的心理感覺是無法知道的，要知道只能以詢問的方式得知，所以心理形容詞在第二人稱的使用限制僅限於詢問，但當表達的是積極的態度則使之動詞化。

第三人稱的心理狀態是無法得知的，只能「看起來好像」，此時的表達方法是將心理形容詞動詞化。但屬於一般性的屬性

敘述時仍用原型。

4.2. 主客觀心理形容詞

一般對外界事物觀感評斷的描述可以是主觀的，也可以是客觀的。如係客觀敘述時心理形容詞不做任何語形變化。如表示積極的狀態或臆測時則將之動詞化。

4.3..心理動詞

心理動詞表達的是對事物的知覺認知，三種人稱都可使用，但在臆測第三人稱有此種傾向意願時則再加-어하다。

五、結論

心理狀態的描述主要是主觀的觀點敘述，因此在人稱上自然有所限制，主觀的主體第一人稱對自己的心理感受描述是非常自然合理的事，而對他人的心理知覺則是無法知曉的，除非當事者自己描述，所以替他人敘述感情則有僭越之嫌，是不合理的，這點在漢語裡似乎不是關心的對象，可是韓語裡對心理形容詞與動詞使用在非第一人稱場合時的區別則是特別明顯的。

韓語的心理描述用言分心理形容詞與心理動詞兩種。

心理形容詞分主觀的與主客觀的兩種。主觀的心理形容詞指內心世界的狀態與經驗，表人的喜怒哀樂憂哀悲驚恐等情緒。而主客觀兼備的心理形容詞指對外界事物的觀感評斷，如

對味道的感覺、天氣的冷暖、事物的好壞等等知覺，既可以是
一般的屬性，也可以是心理的判斷。

心理形容詞是敘述對內心以及外界的感情狀態，使用在第一
人稱時最合理，它必須是平敘句，對第二人稱時以疑問句最
合適，描述第三人稱心理時則是以自己過去對該感情的經驗，
敘述其所內心表露於外的感情狀態，此時使用
- 的型態。心理形容詞以- 轉變為動詞之後，則不
限於第三人稱，而成為各人稱皆可使用的動詞。

心理動詞主要是對事物的認知知覺，各種人稱皆可使用，
但對第三人稱的心理臆測時則以- 型態表達之。

參考資料

- 金聖鍾, 1977, 《여명의 눈동자》, 태종출판사
박연구, 2000, 《현대수필문학상 수상작가 대표작선》,
 을유문화사,
서정수, 1996, 《국어문법》, 한양대학교출판원
李大鎔, 1982, 《사이공 억류기》, 韓振出版社
이은성, 2002, 《소설 동의보감》, 창작과비평사,
현기영, 2003, 《지상에 슬가락 하나》, 실천문학사
 , 2002,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